



# 성도의 빛 3

1977



Motionals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성도의 벗 1977년 3월호

차 례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블  
앤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루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고문

고든 비 힝클리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매리온 디 행스  
제임즈 에이 컬리모어  
로버트 디 헤일즈

등록번호 라-932

1967년 10월 4일

발행일 : 1977년 3월 1일

매월 1일 발행

제13권 제3호

통권 140호

발행인 겸 편집인

엘 에드워드 브라운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 7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서울 514091

인쇄인 : 심화인쇄주식회사 유 건수

상호부조회의 축복과 잠재력 .....스펜서 더블류 킴블대관장... 1

각 자매가 다 중요함 ..... 바바라 비 스미스 ..... 2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 ..... 캐롤 라슨 ..... 4

이제 나도 택함받고

    가치있는 존재임을 느껴요 ..... 에어마 디 맥켄너 ..... 8

어머니로서 부적합하다고 느낄때 ..... 클로디아 티 고오츠 ..... 10

울리지 않는 중 ..... 헤이즐 엠 토마스 ..... 13

펜팔을 통한 개종 ..... 헬렌 패튼 ..... 16

물 위의 시장 ..... 웨리 존슨 ..... 18

심심풀이 ..... 20

질의 응답 ..... 21

사색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 수잔 힐 ..... 22

이해하면서 읽음 ..... 제프리 알 홀런드 ..... 24

선교 사업 ..... 26

영적 말씀 ..... 28

지역 지도자 메시지 ..... 박 재 암 ..... 29

교회 및 지역 소식 ..... 30

우리는 서로 필요합니다 ..... 표 3

© 1976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성도의 벗의 1년 정기 구독료는 1,2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15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25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벗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호부조회의 축복과 잠재력

스펜서 더블류 김블 대관장

성도의 벗이 교회의 여성을 특징으로 다룬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니 바로 3월 17일은 상호부조회가 창립 135주년을 맞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여성 조직을 갖기 원했던 소수의 자매들에게 “신권 조직의 형태를 따라…… 조직을 이루어 주노니……”라고 말했습니다.

후에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 조직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교회가 완전히 조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상호부조회 조직에 관한 이야기, 상호부조회, 1919년 3월, 129페이지) 그러므로 말일성도 자매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의 조직으로 뭉쳐졌습니다. 청년 조직이 청년에게 축복을 주듯이 오늘날 상호부조회는 이 조직에서 활동하는 모든 여성에게 큰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상호부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조직의 회원에게 약속된 큰 축복을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약속하신 그러한 축복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1. 자매들의 조직인 이 상호부조회는 “자매들의 성품에 따라 조직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에 심어 주신 사랑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교회 정사, 4 : 605)

2. “이 상호부조회 회원들이 교회의 머리되는 사람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고에 따를 때 세상의 여왕들까지도 관장할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교회 정사, 4 : 605)

3. “여러분이 부여받은 특권을 실천하면 천사가 여러분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교회 정사, 4 : 605)



4. “지식과 예지가 그 순간부터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교회 정사, 4:607)

5. “상호부조회는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교회 정사, 4:607)

나는 이와 같은 약속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압니다. 나는 사랑하는 아내가 상호부조회에서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 준비하면서 해마다 많은 시간을 들여 경전을 공부하는 생활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깃들게 된 계시의 영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아내가 시간을 내어 자선 봉사 활동이나 방문 교사로써 우정을 나눈 후 그녀에게 깃드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기꺼이 구세주를 따르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발전하고 배우고 돕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돕는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간증을 나누며, 이 일을 하면서 간구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돕고 계시다는 간증도 나누고 있습니다.

나는 의의 대업을 위해 흔들리지 않는 헌신과 열의를 보이는 자매들을 보고 감탄을 금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일지에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축복을 감사히 생각하고, 더 도울 수 없는 것을 미안해 하는 기록을 나는 읽었습니다. 나는 최근에 1900년 1월 16일자 일지를 읽으면서 미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애리조나주 태처에서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로 봉사하셨습니다. 병든 어린 아기가 있어서 바느질을 할 수 없었던 어느 자매택을 회장단이 방문했습니다. 어머니는 재봉틀과 도시락과 애기와 의자를 가지고 가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일지에 어머니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네 개의 앞치마와 바지 네 벌과 아동용 셔츠한 벌밖에 완성하지 못했다.” 그들은 장례식에 참석해야 했기 때문에 4시에 일을 끝냈습니다. 나는 “그 정도밖에 못했다.”는 생각보다는 것처럼 많이 했다는 데 놀랐습니다. 이를 후에 상호부조회 자매는 다시 우리 집에 모여서 일 모임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일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많은 일을 하였다.” 어머니는 그 일 모임을 마치고 다시 아무런 불평없이 역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그것이 내가 태어난 가정이었고 바로 봉사로 일관

해 온 한 여성이 이끈 가정이었습니다. 나의 아내가 이룬 가정도 이러한 가정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속한 수많은 자매가 남편과 자녀를 위하여 이룬 가정입니다. 나는 이러한 가정의 성공은 상호부조회의 이상과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관장단인 우리는 상호부조회를 통해서 얻는 축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크 부장, 선교부장, 지방부장에게 상호부조회의 출석을 향상을 부탁하였고, 자매가 상호부조회에서 활동함으로써 신권 소유자와 가족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를 형제에게 이해시키도록 권고해 왔으며 특별히 독신 자매들이 상호부조회에 참여하도록 강조하여 왔습니다.

상호부조회는 여성을 위해 조직된 주님의 조직입니다. 상호부조회는 형제가 받는 신권 훈련을 보완해 줍니다. 이 조직에는 시온의 가정을 강화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활용되어야 할 힘이 있으나 아직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힘이 활용되기 전에는 형제나 자매가 상호부조회의 참 목적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솔트레이크 제15와드 상호부조회 기록에서 우리는 훌륭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상호부조회는 1868년에 시작되어 약 40여 년 동안 새러 엠 킴볼 자매가 이끌어 왔습니다. 그 자매는 나의 친척은 아닙니다. 1870년대에는 모든 와드에 상호부조회가 조직되었는데, 일부 형제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해하지 못해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와드의 감독님은 상호부조회를 이해하였고 중요시 하셨습니다. 1878년 1월 8일 그는 보좌를 보내 상호부조회에서 이야기를 하게 하였습니다. 바인더 형제는 감독의 사랑을 전하고 “자매들도 신권 형제보다 더 많이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모든 지원과 협조”를 다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다음과 같은 의미있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는 “감독과 보좌가 역원들을 성실히 지지하듯이 그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역원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제15와드 상호부조회 기록, 교회 기록 보관소)

우리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자매님들께서 우리가 상호부조회 지도자를 성실히 지지하듯이 여러분의 지도자를 지지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스미스 자매님과 두 보좌는 훌륭한 분입니다. 그들은 생활을 하면서, 결정을 내리면서 영의 지시를 간구합니다. 그들은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성실한 청지기입니다. 그들은 십이사도 평의회의 고문과 조화있게 일을 수행하고 있으며, 모든 면에서 신권 지도자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사랑과 확신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 속하게 된 자매들은 모두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의를 대적하는 악의 힘이 과

# 각 자매가 다 중요함

바바라 비 스미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거 어느 때보다도 커졌으나 우리의 가장 큰 잠재력을 활용할 기회도 이에 따라 커졌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잠재력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것처럼 위대한 경지에 이르기 위해 개발해야 할 성품이 무엇이겠습니까? 잠시 이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지와 빛과 지식입니다. 여성은 이런 면과 관련해서 어떤 특별한 기회를 부여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같이 이러한 특성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자매들에게 준 약속의 일부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침으로써 가장 잘 배울 수 있듯이, 우리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가정, 주일학교, 초등학교, 상호부조회, 성찬식, 일상의 대화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침으로써 매일 그러한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도록 부름받은 자매들은 그들이 가르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물론 자신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쌓아 나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연구와 기도를 통해 부름을 영화롭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자매가 학교, 개인 학습, 상호부조회를 통해 빛과 지식을 받도록 권고합니다.

둘째, 지도력입니다. 여성은 지도력을 향상시킬 특별한 기회가 많습니다. 지도력이란 남에게 일을 시키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력이란 바람직한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도록 권고하는 능력입니다.

끝으로 가장 근본이 되는 하나님과 같은 성품 곧 자비와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임으로써 자비가 베풀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비를 사랑이라 부릅니다. 상호부조회는 참으로 자매들에게 자비와 봉사와 사랑의 느낌을 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봉사 활동을 펼 수 있는 지역 사회와 가정이 있습니다. 여성의 품성에 충실하고 봉사의 기회를 활용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배우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딸들이 그와 같이 되도록 돕기 위해서 주시는 몇 가지 축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그들대로 특별한 기회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자비로 모든 남녀가 그들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의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의 타고난 성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서로 비슷한 면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로 차이가 있지만 이를 질투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차이 가운데서 피상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알아 이에 따라 행동하게 하셨습니다. 신권을 소유하신 형제님과 상호부조회 자매님들이 모두 이 위대한 교회의 회원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어 완전케 이르는 길에서 서로 돕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교회를 세울 때 상호부조회를 조직하여 회복된 교회 조직의 일부가 되게 하였습니다. 주님의 계획에 여성이 참여하게 되었고 복음이 널리 전파될 때 여성은 의로운 목적을 위해 단합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상호부조회 운동은 옛 선지자가 예언한 만유의 회복의 일부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상호부조회는 완전한 복음 프로그램의 일부였습니다.

상호부조회의 목적은 보다 효율적인 자매들의 자선 봉사 활동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는 데 있습니다. 끊임없이 크고 작은 사회적 변화가 일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자매들이 아무런 도움없이 복음의 가르침에 맞는 선택을 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교육 프로그램에는 복음 원리, 사회 관계 기술, 전세계 자매와 가정에 관한 교육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돌보도록 돕는 상호부조회의 끊임없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자매들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잠재력의 원천입니다. 그들의 재능과 능력과 천부의 자질은 놀랍습니다. 나는 그들의 큰 힘을 보아 알고 있습니다.

상호부조회의 이상은 단지 남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는 자신을 발전시키고 남에게 축복을 줍니다. 이것은 남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자기를 잊는 그리스도의 이상과 같이 이를 우리의 이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교회 역원의 임무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구세주의 목표를 따르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세계의 모든 말일성도 자매를 일일이 만나 볼 수 있다면 나는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왕국에서 각자가 얼마나 중요하며, 그들의 재능과 능력과 은사와 기쁨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커지게 되며, 만유의 회복의 일부로 주님께서서는 주님의 가족인 자매의 조직을 회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할 것입니다. 이 상호부조회는 모든 자매들에게 풍요롭고 보상이 따르는 놀라운 경험을 주며, 그들이 발전하도록 돕고, 다음에 그들이 다른 사람이 발전하도록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것은 주님이 택하셨던 방법입니다. \*

#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

캐를 라슨

**복**음은 전세계 여성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복음은 어떻게 그들의 전통을 변화시켜 줄까요?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까요? 어떻게 그들의 삶을 향상시켜 주나요?

우리가 처음으로 전세계 말일성도 여성에 관한 기사를 기획했을 때는 크게 다른 의외의 반응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이 되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여러 나라의 말일성도 여성과 서신을 교환하였습니다. 현재 남미의 켈리즈 아르헨티나 스테이크, 라프라타 제 1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단 보좌인 안젤라 루보미르스키 자매의 다음 말은 우리가 발견한 사실을 한 마디로 요약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스타리카나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말일성도 가정에서는 아무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선을 사랑하고 이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음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복장이 다르더라도 그들의 삶은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여성으로서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 서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주고 받고 서로 이해하며, 인정받고, 성취감을 발견하고 또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져 갈구합니다. 상호부조회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교사요 안내자입니다.”

말일성도 자매는 전세계 어느 곳에 있으나 모두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좁아져 가고 있으며, 여러 나라 여성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이 지니는 모든 미덕은 복음이 그들의 생활의 일부가 될 때 완전해지며, 그들의 삶은 목적을 갖게 됩니다. 말일성도 여성은 상호부조회를 통해서 그들과 동일한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다른 여성들과도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그들은 인생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권 소유자의 반려자가 되고, 어머니가 되며, 가정주부가 되는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 안에서 그들이 나누는 축복은 남성이 나누는 기쁨인 간증이나 성신의 은사 등과 같은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성은 연령에 관계 없이 그들의 창의적인 재능을 나눌 수 있습니다. 코펜하겐 제1와드의 페트라 에어드맨 자매는 공직에서 은퇴했으므로 그의 친구들은 그녀가 매우 지루한 나날을 보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보다 많은 시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매주 월요일 그녀는 70세가 넘는 자매 친구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다음 늦기 전에 집에 돌아가지요. 우리처럼 늙은이들은 연례 바자회에 출품할 뜨개질, 바느질을 즐겨 합니다.”

멕시코 베러쿠르즈 선교부의 상호부조회 회장이며 선교부장의 부인인 마리아 데레사 피 데이 파레 테이즈 자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매가 교회에서 활동적이면 자신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견하게 되지요. 복음을 공부하고 올바른 원리를 일상 생활에 적용함으로써 자매는 보다 훌륭한 여성이 되고 가족과 지역 사회를 돕는 역군이 됩니다.”

베네주엘라 미렌다의 헨리케타 피 데이 곤자레이즈 자매는 다음과 같이 개인의 발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년 전에 나는 글조차 읽지 못하는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상호부조회 문화의 정수반 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부름받은 일을 행하도록 도와 달라고 나에게 부탁했지요, 언젠가 나는 그녀가 공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지도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지도가 무엇인지조차 모른다고 말하면서 보다 주님께 훌륭하게 봉사하기 위해서 야간 학교에 등록하기로 결심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퀵메이즈 아르헨티나 스테이크, 퀵메이즈 와드의 사회관계 교사인 이사벨 맥켄 자매는 자매들이 교회 회원이 된 후 경험하게 되는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우리 동네의 오두막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녀의 깨끗치 못한 외모는 가난에 찌든 상태를 그대로 반영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걱정 없이 그녀의 작은 움집에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녀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쥐 처럼 굴 속을 들락날락하면서 살았지요. 그녀는 아무런 목표도 없고 방향도 없이 되는 대로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두 명의 선교사가 찾아와서, 그녀는 그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여 입교하게 되었고, 상호부조회에 참석했지요. 그후 그녀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나 그녀의 집은 깨끗하고 아름답운 다른 집으로 바뀌었어요.

“과거의 그녀를 알았던 사람은 그녀가 하는 간증을 믿기 어려울 정도지요. 그녀는 의욕을 상실한 사람에서 활동적이고 깨끗하고 단정한 자세를 갖춘 자매로 변했으니깐요. 그녀는 이제 자신의 상태를 극복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주님의 명대로 살려는 굳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도가 아르헨티나에 왔을 때 그녀는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부에노스 아이레스까지 45킬로미터나 되는 먼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교육 수준이 대단히 높고 교육이 사회에서 성공의 척도가 되는 대만에 사는 첸 린 슈량 자매는 자신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 자기 지부의 어느 교육받지 못한 자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는 자신이 외모를 가꾸는 일에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남편이 자주 집을 비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몇몇 자매들이 그녀에게 그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딸이므로 자신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된다고 일러 주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기술을 배웠고 새로운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외모에도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남편이 집을 비우는 일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핀랜드의 안네 페린 자매는 복음이 어떻게 한 자매의 생명을 구해 주었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구체적인

이유도 모른 채 장기간 동안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족은 모두 행복했으며, 그녀에게는 아들이 들이나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이며,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목적도 기쁨도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으며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자주 울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전보다 더 이런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공허함과 자기 확대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시다면 나를 좀 도와 주십시오!’ 다음 날 선교사가 그녀의 집을 찾아와 하나님은 살과 뼈의 육신을 가진 분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들의 메시지를 들은 그녀는 그토록 오랫동안 갈구하던 바로 그것을 찾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자 그녀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 들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 인생의 큰 의미와 자녀의 어머니로서 남편의 반려자로서 역할의 중요성을 안 다음부터 그녀는 그녀의 일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었고, 남편은 비록 교회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정신적으로 활력에 넘쳐 있고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위에서 든 예에서와같이 여러 가지 변화를 준 한가지 이유를 든다면 말일성도가 지닌 여성의 역할에 대한 개념 때문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말일성도 자매는 전세계 어느 곳에서나 근본적으로는 같고, 교회의 가르침도 같지만 문화권에 따라 여성들의 역할에 대한 정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대개의 나라에서 여성은 남성을 내조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소위 말하는 여성 해방이 크게 그 힘을 떨치고 있는 곳도 있으며 과도기에서 변화를 겪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환경에서건 말일성도가 된다는 것은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일성도의 여성관은 독특합니다. 여성에 대한 지금까지의 어떠한 나라에서의 정의와도 다릅니다. 그것은 여성은 완전한 한 개인으로서 남편의 동반자요 협조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일성도 자매가 갖는 문화적인 유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상황은 이곳에서 언급되지 않은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멕시코에는 교회에 입교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해야 했던 자매들이 많습니다. 부모나 남편이나 가족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라고 멕시코 베러쿠르즈 선교부의 테레사 피 데이 파레 테이즈 자매는 말합니다. 그녀는 멕시코가 가풍을 크게 숭상하는 전통을 가진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여성의 행위를 규정지어 주던 규범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일찍 결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합니다. 극히 제한된 사람만이 직장을 갖고 일합니다.

“자매가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와 가정일로 시간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가족이 집안 일에 익숙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회원인 경우에는 남편과 자녀의 협조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원이 아닌 남편을 둔 자매는 많은 장애가 있지요. “때로는 여성이 남편과 종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도 있어요. 대개의 경우 남편에게 순종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지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남편이 복음을 이해하게 될 날을 고대합니다.”

사모아에서도 여성의 역할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사모아 아피아 선교부의 선교부장 부인인 마리아하 피터즈 자매는 교회에 속한 최초의 피지인이며, 가족과 함께 처음으로 신전에 간 사람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닌 특별한 위치 때문에 사모아 자매들과 가까이 하며, 그들로부터 사모아의 문화를 배웠습니다. 그녀는 복음이 사모아인의 가정 생활에 미친 영향을 이렇게 관찰하였습니다.

“과거에는 가족 관계가 엄격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함께 자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자녀는 부모와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할 수조차 없었고 아이들은 맨 마지막에 식사를 따로 했습니다. 아내는 시누이의 요청이 있을 때는 언제나 의무인양 순종하고 도와야 했습니다. 아내나 자녀는 가정의 중대사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가장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가족이 함께 모든 일을 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가족에게 가정의 밤을 가르치고, 부모가 자녀를 이끌어 가는 법을 배우게 되자 부모는 가정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결정을 내리거나 자신을 나타내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일성도 가족은 노인들을 보살피고, 그들은 서로를 위해 돕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신권 행사입니다. 가족은 신권 소유자를 존중하며 그가 소유하고 있는 권능에 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자매들은 상호부조회를 사랑하고 있으며, 가정 생활을 향상시키고 자녀 건강을 돕는 가사 활동을 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말일성도 가족의 유대는 전세계적으로 뻗어가는 현 추세와는 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다름슈타트 지방부의 상호부조회 회장단 보좌인 울슈라 본셀호우 자매는 이러한 현상이 독일의 다른 가족에게 미친 영향과 현재 그들이 처한 환경을 극복하고 교회로 향하고 있는 그들의 목표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독 자매들은 가족 유대를 해치는 무서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성인의 약 반수가 기혼자입니다. 1960년 중반 때부터 결혼율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이혼률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이혼율 때문에 파탄된 가정수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개의 이혼은 음주와 부도덕이 그 원인입니다. 자녀 수가 셋 이상인 가정이 10퍼센트인데 반해 하나나 둘인 가정이 40퍼센트입니다. 출산률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여성은 남편으로부터 독립하여 자기 스스로의 위치를 확보하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은 높은 생활 수준을 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남편의 수입만으론 이룰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교회에 새로 들어온 자매들은 신권과 부딪치게 됩니다. 그들은 가장 중심의 가정을 시대에 뒤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여성은 자신의 안내자요 책임있는 반려자인 남성을 받아들이고 지지해야 하는 새로운 일에 부딪치게 되는 것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인 안나 린드백 자매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대 스웨덴에서는 여성이 자신의 잠재력을 인식하고자 할 때 가정을 떠나 직장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 밖에서 얻는 이러한 성취감을 학교, 대학, 라디오나 신문 등에서 크게 고취시키고 있지요. 탁아소가 점점 많아지고 남편과의 동등권을 주장하는 여성 때문에 가정에 파탄이 일고 있어요.

“교회 회원이 되어 겪는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모두가 가정과 남편과 자녀에 대한 새로운 자세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태도를 바꾸는 데 큰 어려움이 있으나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가정에서 남편을 축복사로서 지지하는 일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직장을 버리고 자녀와 함께 가정에 머문다는 결심을 내리기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교회가 여성의 삶에 큰 축복을 주는 것은 신권 원리가 남편에게 미친 영향 때문입니다. 남편은 친절과 존경심으로 아내를 대하는 법을 배웁니다. 남편에게는 두 개의 도덕 표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실득과 오래 참음과 유순함과 꾸밈없는 사랑”(교성 121:41 참조)으로 가정을 관리하는 법을 배웁니다.

스톡홀름 제2와드의 브리트 로우즈린드브롬 자매는 신권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신권과 가족을 존중하는 남편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두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으며 아빠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지요.

“열 한 살 난 아들 마이클은 일전에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정말로 아빠를 신뢰할 수 있게 되





있어요. 아빠 말씀대로만 한다면 모든 게 잘 될거예요.”

칠레의 비나델마 스테이크의 상호부조회 회장인 에어마 디 맥켄나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교회 일에 성실하고 신권을 받으면 여성의 삶도 그녀가 상상하지 못한 정도로 풍요롭게 됩니다. 서로가 부름받은 일을 돕게 되며 남편은 겸손하고 예의를 지키게 되지요. 남편은 아내가 상호부조회에 나가고 방문 교육을 하도록 시간을 내어 주며 사교나 오락 활동에도 함께 참여하게 되거든요. 자녀를 돌보는 일이나 가사일까지도 남편이 도와 주지요. 자녀와 함께 복음 안에서 자라나는 가족이 교회 집회에 함께 참석하는 것을 보는 일이란 참으로 아름답고 즐거운 일이에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모든 말일성도 자매가 다 이상적인 가정 생활을 영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문제로 자매만 개종하고 남편이 개종하지 않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녀는 큰 갈등을 겪게 됩니다. 남편과 다투어 가면서 성찬식에 참석해야 하는지 혹은 남편에 순종해서 집에 머물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주일학교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족들로부터 그만큼의 시간을 빼앗아야 할지도 문제입니다. 비회원은 이러한 모임이 그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아는 남편이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가족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 한다고 느끼면서 자신은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으며 복음의 가르침으로부터 큰 유익을 얻고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매일같이 한 편으로는 좋은 신앙을 행사하며 다른 한 편으로는 좋은 가족 유대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자매들도 많이 있습니다.

번역 출판부의 교과 과정 전문가인 클레 리벤티 자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상 파울로의 한 자매는 남편으로부터 침례 허락을 받기까지 12년이 걸렸습니다. 그 자매는 아직도 복음에 대한 강한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성찬이 전달되어도 이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수없이 울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오랜 기도와 금식과 간구 끝에 남편으로부터 침례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침례 일자나 침례가 베풀어 졌다는 사실을 자신은 알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녀들이 어머니처럼 침례받기를 원했지만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의 인내와 모범을 통해 남편을 개종시킨 자매도 있습니다. 쾰메이즈 스테이크, 라프라타 제1와드 상호부조회 보좌인 안젤라 엘 데이 루보미르스키 자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라프라타 제2와드의 마리린 울리아즈 데이 돌더 자매는 9살때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항상 활동적이었고, 여러 직책을 맡아 일해 왔습니다. 그녀는 교회의 회원이 아닌 훌륭한 청년과 결혼하여 가정에서 복음의 권고와 가르침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녀는 가정과 남편과 자녀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았습니다. 교회 모임이 끝나면 즉시 집으로 돌아와 집안 일을 보살폈습니다. 남편도 개종하여 라프라타 제2와드 감독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여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플레트 카네 자매의 다음 말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교회 회원은 아니었지만 나에게 고상한 원리를 심어 주시고 결혼 때까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훌륭한 어머니를 늘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내 인생에 새로운 면을 보여 주었어요.”

“복음은 매일 매 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일깨워 주었고 영광스러운 앞날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문자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것이 인생의 큰 문제를 당해 이를 이겨 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지상에서의 나의 생활이 다음 세상에서의 나의 위치를 결정지어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 지식은 나를 보다 훌륭한 아내와 어머니가 되도록 늘 일깨워 주었습니다.” \*

편집자 주; 저자가 아래에 열거한 사람들의 기사가 모두 본문에 인용되지는 않았으나 그들이 기고해 준 기사가 본 내용을 작성하는 데 토대가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그분들의 기고에 감사드립니다.

<기고해 주신 분들>

1. 아르헨티나: 쾰메이즈 아르헨티나 스테이크 라프라타 제1와드 안젤라 엘루보미르스키
2. 아르헨티나: 쾰메이즈 아르헨티나 스테이크, 쾰메이즈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 마벨 아멘다 타메이 레이 프레이즈
3.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슈트 선교부 선교부장 부인 허미니아 보니노 레이 아빌라
4. 아르헨티나: 쾰메이즈 아르헨티나 스테이크, 쾰메이즈 와드, 사회 관계 교사 이사벨 맥켄
5. 벨지움: 벨지움 브뤼셀 선교부 후이 지부, 플레트 카네
6. 브라질: 본부 번역 출판부 교과 과정 전문가 클레리 피 벤티
7. 칠레: 비나델마 칠레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 에어마 디 맥켄나
8. 덴마크: 덴마크 스테이크 코펜하겐 저나 벤티
9. 프랑스: 프랑스 파리, 이본느 아디트
10. 핀란드: 핀란드 번역출판부 번역부장의 부인 안네 페린
11. 독일: 독일 오펜버그 마린 산토
12. 독일: 프랑크푸르트 다름슈타트 지방부 상호부조회 보좌 울슈타 본 엘 호우
13. 홍콩: 슈 슈 창
14. 일본: 일본 나고야 선교부 시즈오카 지방부 도히코
15. 한국: 한국 번역 출판부 번역부장이 남신
16. 멕시코: 베러쿠루주 선교부 선교부장의 부인 마리아 테레사 피 메이 파레이데이즈
17. 네덜란드: 제이 에이치 키르쉬바움
18. 페루: 페루 리마 신학 연구원 원장의 부인 사라 곤자레스 소우자
19. 사모아: 아피아 사모아 웨스트 스테이크 케사가 제1와드, 마리아하 케 이피터즈
20. 사모아: 아피아 사모아 웨스트 스테이크 케사가 제1와드, 메리 테레사 아칭
21. 스웨덴: 스톡홀름 제2와드, 브릿트 루우즈 린드블롬
22. 스웨덴: 스톡홀름 스웨덴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 안나 린드백
23. 타히티: 매봐 타하비
24. 타이완: 쉐 린 슈량
25. 통가: 통가 번역 출판부 번역부장 시온 라투
26. 베네주엘라: 베네주엘라, 미렌다, 헨리 케이타 피 메이 곤자레이즈.

# 이제 나도 택함받고 가치있는 존재임을 느껴요

에어마 디 맥켄너

벌써 저녁이 되어 라스 로사스 마을에는 황혼이 짙어 가는데 그림 같은 작은 집들이 정원에 둘러 싸였고, 꽃피어 있는 유실수가 푸른 언덕을 수놓았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나는 동반자 가브리엘라 레이즈 자매와 함께 방문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생각은 조금 전에 방문했던 벨라 바라스 자매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라스 자매의 가정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빛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도 그 영향력에 감동되어 있었습니다.

나의 동반자는 부드럽고, 다정한 어조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회원이 되기 전에 나는 라스 로사스에서 살았습니다. 바라스 자매는 이웃이었어요. 우리 땅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물을 길어 가던 우물이 있었어요.

“나는 우물가에다 채소와 꽃을 가꾸었지요. 나는 이 정원을 무척이나 소중하게 여겼답니다. 매일 돌보고 가꾸었어요. 동네 아이들은 언제나 우물가에 물러와 공놀이를 했어요. 나는 아이들이 꽃밭을 밟지 않을까 걱정했지요.

“어느 날 내가 시장에서 돌아와 보니 정원의 값진 꽃이 모두 짓밟혀 있었어요. 나는 몹시 화가 났어요.

“나중에 아이들이 물길러 왔을 때 나는 그들을 몹시 꾸짖었어요. 나는 화가 나서 이웃 사람들이 물을 길지 못하도록 했지요.

“그날 저녁 아이들은 빈 물통을 들고 모두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에 나의 이웃이 나를 찾아와 자기 집에 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겠냐고 부탁을 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집을 나서면서 한바탕 싸움을 벌일 준비를 갖추었지요.

“내가 벨라 바라스 부인댁에 도착했을 때 그 자매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머니 오늘 이렇게 오시라고 한 것은 그 동안 우물을 사용하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려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정말 큰 신세를 졌어요.”



“그녀는 조금도 언짢은 기색이 없이 친절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어요. 또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나에게 작은 돼지 한 마리를 주었어요.

“나는 무척 당황하였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럴 수가 있을까? 나는 갑자기 마음이 가라앉는 걸 느꼈어요. 내가 생각했던 싸움거리들은 모두 쓸데가 없었습니다. 나에게 선물을 준 사람에게, 나는 물을 길지도 못하게 했어요. 나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집 아이들이 내 정원을 망쳤다고 야단을 쳤거든요. 그녀는 오히려 나에게 감사하고 선물까지 주었어요. “난 그 부인이 교회에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



어요. 그래서 다른가 보다 하고 생각했죠.

“다음 날 내가 물길러 우물에 갔을 때 우물이 말라 있는 것을 보았어요. 나는 울면서 후회했어요. 그러나 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나는 물길러 멀리 가야 했고 꼭 물어 보아야 했어요. 물이 떨어질 때마다 그랬죠. 매우 값진 교훈을 얻었어요. 내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릴 수 없다는 생각을 하니 참으로 서글펐어요.

“이 주일이 지나자 물이 마를 때와 똑같이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물이 나왔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시는 사람들에게 물을 길지 못하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나는 바라스 부인댁에 가서 물이 필요하면 길어 가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이야기를 좀 나누었고, 나는 지난 2주 동안 생각해 온 질문을 했지요. ‘어느 교회에 나가세요?’

“‘우린 물몬이예요. 우리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다니지요.’

“내가 처음 들어보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나는 그녀처럼 훌륭한 태도를 지닌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틀림없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마침내 선교사들이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나는 곧 침례를 받았고, 남편도 내 뒤를 따라 침례를 받았습니다. 모든 자녀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때부터 내 생활이 바뀌었어요. 내게 가장 어려웠던 일은 화를 참는 것이었어요. 아직도 어렵긴 하지만 자제에 관해 많이 배웠어요. 나는 아이들을 보다 잘 교육시킬 수 있게 되었고 그들과 가깝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나는 유년 주일학교 교사로 부름받았어요. 나도 남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나도 베풀고 가치있는 존재임을 느껴요. 그러나 가장 큰 기쁨은 방문 교사가 된 거지요. 나에게 가장 큰 교훈을 가르쳐 준 사람을 방문하는 일이죠.”

우리는 라스 로사스의 먼지 투성이의 길을 계속 걸어 내려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복음, 이웃, 상호간의 사랑으로 가득찼습니다. 아름답고 값진 순간을 두 방문 교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

에어마 더 맥켄나 자매는 칠레 비나델마 스테이크 쿼플 워드 회원이다.

어머니가 된다는 게 것처럼 힘든 일일까? 라고 나는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훌륭한 친구가 와서는 자기는 어머니로서 자격이 없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두 명의 다른 친구가 거의 비슷하게 나를 찾아왔습니다. 나는 남편이 아동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와서 무엇인가를 털어놓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내가 보기에는 모두 모범적인 어머니라고 말하면 모두 놀라는 표정을 짓곤했습니다.

앤은 겸연쩍어하면서 이렇게 시인했습니다. “난 어머니날 영적 말씀이 듣기 싫어 죄책감을 불러 일으키거든. 나는 그들이 말하는 그런 이상적인 어머니는 못되거든.”

내가 알기로 매우 훌륭한 자매인 릿 자매는 지난 상호부조회에 분반 시간이 되어도 어머니 교육반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그녀를 보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사회 관계반에 참석하겠어요. 오늘은 어머니 교육반에 가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부적합한 걸 느끼게 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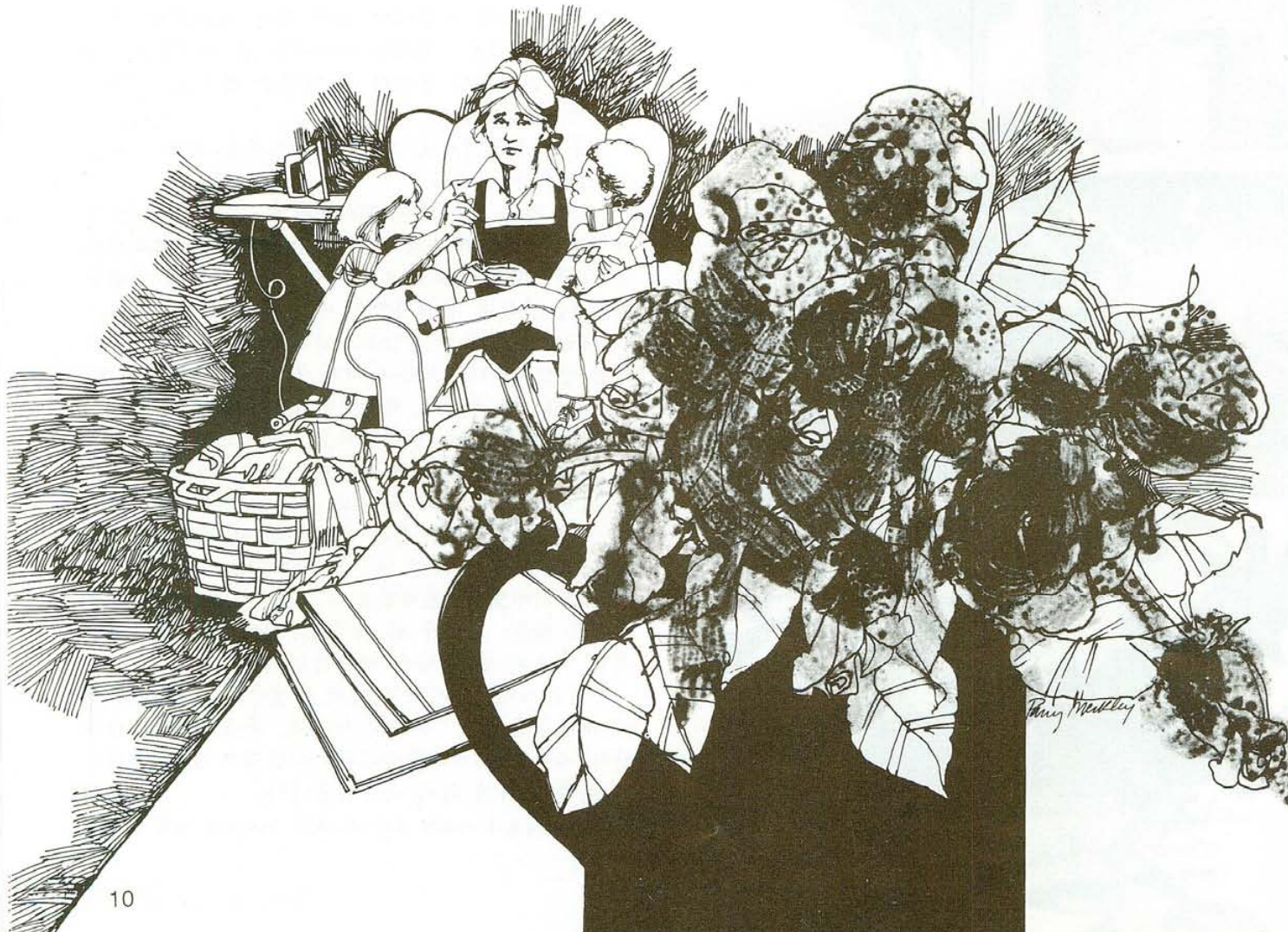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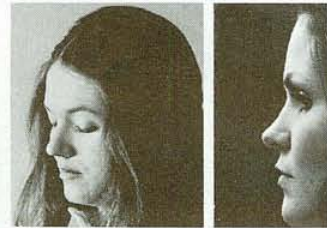
친구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르베카도 “난 훌륭한 어머니가 될 수 없는 여자인가 봐”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훌륭한 자녀를 일곱이나 두었습니다.

왜 이처럼 유능하고 영적인 자질을 갖춘 자매들이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느낄까요? 나는 이들의 생각과 내가 지닌 느낌을 조용히 생각해 보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를 발견하였습니다.

1. 우리는 다른 사람이 최상의 상태에 있을 때 즉

## 어머니로서 부적합하다고 느낄때

클로디아 티 고오츠



신체적으로 말끔히 가꾸어져 있고 정서적으로 순화되어 있을 때의 상태를 보고 우리 자신을 측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 갖는 느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비교하고는 자신이 부적당하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2. 우리는 자신을 가정에만 매어 두는 것이 좋지 않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부모상이나 여성 해방 운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정적인 느낌을 갖도록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경험이 없고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어머니가 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소녀일 때는 어머니가 된다는 일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아름답고 좋은 면만을 봅니다. 그러므로 처음으로 어려움이 닥치면 실패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나는 부모가 되는 데도 성숙하는 단계가 있어 유년기와 사춘기를 지나야 성숙한 어머니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매우 존경하던 어머니들도 낙담과 실망을 맛보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진정한 어머니로서의 기쁨은 그들의 본분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온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서는 명하지 않습니다. (니일 3:7 참조) 나는 경험으로 이것을 압니다.

**유아기,** 어머니가 되는 첫 시작 단계인 이 단계는 매우 이상적이고 천진스러운 기간입니다. 우리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 모두 흥분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대단했습니다. 나는 완전한 어머니가 되고 완전한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자신했고, 육아서적도 많이 읽었습니다. 나는 특별한 경우어나 모든 사람이 흔히 하는 것처럼 실수를 범하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로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년기,** 나는 아이를 키우는 데는 책에서 읽은 것보다 힘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내가 읽어 주기를 바라는 책들을 읽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수만 가지의 질문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항상 무엇인가를 구하고자 해서 경험있는 다른 어머니들과 어울리게 되었을 때는 그들의 제언과 경험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사춘기,** 어머니 발전 단계에서 어느 단계를 피해보고라 한다면 나는 기꺼이 이 단계를 피할 것입니다. 이 단계를 순탄하게 넘기는 사람도 있지만 것처럼 다행한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나 자녀 수가 적은 어머니는 과연 이러한 단계가 있나 하고 의아해 할 것입니다. 어떠한 어머니라도 자신이나 귀여운 자녀에 대해서까지 강한 부정적인 면과 반감, 부조화를 느끼게 된다고 하면 이를 벌받을

일이라고 생각하실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느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실 분이 계시더라도 결코 그런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남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나중에 이런 말을 듣고 다시 일깨워 줄 수 있을 사람 앞에서라면 결코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 단계에 이르는 연령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결혼 5년 만에 다섯 살 미만인 아이 넷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제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들 간에 경쟁 의식이 크게 썩트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아기보다 더 관심을 받고 싶어 했고, 심지어 꾸지람을 들으면서도 관심을 집중시킬 구실을 꾸며냈습니다. 나는 항상 지쳐 피곤해 있었습니다. 아기의 불규칙한 식사 때문에 모두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이럴 때면 화가 나곤 했습니다.

은밀히 나는 자유를 갈구했습니다. 나는 어머니로서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이가 빨리 커서 내가 평소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한 활동인 사회 활동을 해서 그것으로부터 마음의 안정을 찾아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져 보았습니다. 나는 고심 끝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녀를 키울 수 없다면 능력이 없는 것이므로 자녀를 낳지 말아야 한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성숙기,** 이 마지막 발전 단계의 특징은 완전히 평생을 요하는 과정이라는 간증으로써 명확히 설명됩니다. 그러한 느낌을 받아들이고 소화하며, 문제를 당해이와 싸워 좌절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며 조용히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몇 가지의 중요한 동기가 나에게 미숙한 반항심을 털어버리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1. 시간. 남편은 결혼 초부터 “책에서 보다는 실생활의 경험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지적인 측면에서 볼 때 수공이 가나 이러한 진리를 정서적인 면에서 받아들여 실천하는 데는 약 15년이나 걸렸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나는 내가 가르친 것의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수년 동안 자녀에게 사려깊고 분별력을 지니도록 가르치면서 모든 일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지난 어머니날 14살 난 딸 아이가 자기가 만든 옷을 나에게 선물하였을 때 결실을 맺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딸 아이가 밤을 새워 만든 두 번째 옷을 선사받았습니다. 그녀의 희생 정신과 사려깊은 마음에 나는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2. 금식, 기도, 경전 공부. 내가 이러한 활동에 마음을 쏟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성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요한 성구 중 첫 번째 성구는 니파이이서 9장 28절과 29절이었습니다.

“오 악마의 간교한 피여, 오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나약함과 헛됨이여, 저들이 학식을 얻으며 스스로 현명하다 생각하여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밀어 내며, 저들이 스스로 아는 듯이 여기나니, 저들의 지혜가 어리석도다. 저들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니 저들은 필경 멸망하리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고를 따를진대, 학식을 얻음이 유익할 것이나,” 나는 내가 범한 첫째되는 큰 과오는 주님을 통해 나오는 권고를 충분히 듣지 않고 인간의 지혜만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에게 큰 의미를 안겨 준 또 다른 성구는 니파이서서 2장 11절이었습니다. 법사에 서로 상대가 되는 것이 있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야곱에게 준 리하이의 권고가 나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나는 그 성구를 여러 차례 읽었습니다. 왜 나는 어머니로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성구를 적용하지 못하였을까? 법사에 서로 상대가 되는 것이 있다는 말은 어머니가 되는 일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왜, 나는 만사가 순조롭게 되기만을 바라왔나?

세 번째로 내 마음을 사로잡은 성구는 “육으로 난 인간은 ...하나님의 적이요”(모 3:19)라는 베냐민 왕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왜 나는 나의 자녀가 좀더 다르기를 기대했을까요? 자녀가 부정적인 특성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비정상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쁜 엄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연인으로서의 속성을 버리고 영적인 존재가 되도록 돕는 것이 나의 사업이요, 나의 영광일 것입니다.

나를 성숙 단계로 이끌어 준 네 번째 성구는 리버티 감옥에서 낙담에 빠진 요셉 스미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아들이여, 평안할지어다...”

“...이 모든 일은 네게 경험이 되고 네게 유익이 되는 줄 알지어다.

“인자는 모든 자보다 낮게 몸을 낮추었나니, 너는 저보다 크뇨?”(교성 121:7:122:7~8)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자신을 비참하게 느낄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요셉 스미스보다 더 큰 시련을 받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

습니다. 나는 다시 사물을 옳게 보고 분별할 줄 아는 안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 태도가 바뀔에 따라 어머니로서 나의 생활도 바뀌었습니다. 이 성구들은 내가 바랐던 참된 형상을 비쳐 준 거울과 같았습니다. 나는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했으나 정작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였습니다. 마침내 나는 훌륭한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 위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실패에다 생각을 고정시키지 않고 성공에다 중심을 두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관념을 나에게 깊게 넣어 준 작은 일을 기억합니다. 네 살 먹은 아이에게 자기 방에 가서 일요일에 입을 옷을 가져 오게 한 후 15분 후에 그 아이의 방에 가 보니 그는 옷 바구니에다 공을 던지며 놀고 있었습니다.

나는 화를 내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언제든지 시키면 말을 잘 듣지. 정말 놀라겠는걸” 아이는 겸연쩍게 웃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정리하잖아요. 엄마 놀라실 거예요” 나는 그 아이가 옷을 찾기 위해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그 아이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나는 긍정적인 느낌을 자녀와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큰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경험으로 나는 발전이 더딘 현상도 주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어머니가 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길은 멀고 평탄하지 않으며, 자녀를 가르치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범할 수도 있으나 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내 자신도 수양을 쌓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성품의 거친 일면이 하나씩 닳아 갔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에 도와 이 작은 영들을 이 세상으로 데려왔습니다. 우리의 보상은 클 것입니다. 이는 목적이 결실을 맺어서 일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한 영적인 발전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사업을 함께 행하고 그의 영광도 함께 맛보게 하기 위해서 더 완성되어야 할 세상을, 더 배워야 할 교훈을, 더 강하게 지녀야 할 간증을, 개발해야 할 능력을 우리에게 남겨 두셨습니다. 결과만이 우리에게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이루는 수단이 우리를 세련되게 하고 깨끗하게 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노력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맞아 주실 때까지 이러한 자세로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

클로디아 티 고오츠 자매는 솔트레이크 이미그레이션 스테이크, 헤이트 워드 회원으로, 교회 교육 개발 위원회에서 작가로 일하고 있다.



# 울리지 않는 종

헤이즐 엠 토마스 / 글 래리 윈버그 / 그림



새로운 시장이 부임했을 때 알프스 산간 지역에 살던 주민들은 다시 아름다운 종소리를 듣게 되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종소리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난 종을 울릴 수 없어”라고 시장이 말했습니다. “저녁 종 칠 시간에 식사를 해야 하거든. 배가 고파 성꼭대기까지 가서 종을 칠 수가 없단말야. 보좌관 중에서 누가하면 되겠지.”

그러나 그의 보좌관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나도 그 시간엔 저녁을 먹어야 해.”

“나도 안돼”하고 다른 사람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종이 울리지 않고 수년이 흘렀습니다. 정말 종소리 한 번 듣지 못하고 어른이 된 소년 소녀가 많았습니다. 한스도 종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종소리를 멀리 보내기 위해 높게 지은 탑의 이야기를 할아버지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탑을 지었을 때는 매일 종이 울렸었

지”라고 할아버지는 한스에게 이야기를 들려 주셨습니다. “또 무슨 중대한 일이 있을 때에도 종이가 울렸단다. 눈사태가 나서 길이 막혔을 때에도 종이 울렸어. 종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나와 눈 속에 갇힌 사람들을 구해 주었지.”

“사람을 꺼내 주었나요?”라고 한스가 물었습니다.

“그래. 기적이었어. 눈 속에 공기 주머니 같은 게 있어서 얼마 동안은 견딜 수가 있었거든”하고 할아버지가 대답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말을 마치시면서 창 밖으로 탑을 바라보셨습니다.

“저 종이 항상 울렸는데”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종소리를 들었거든”

“할아버지 종소리가 듣고 싶어요.”하고 한스가 말했습니다.

“아마 듣게 되겠지”하시며 할아버지는 대답하셨습니다. “시장님에게 다시 한 번 부탁해 봐야겠어.” 그러나 그들이 관리를 만나보았지만 그들은 고개를 내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우린 종을 울릴 수 없소. 종치는 사람이 없단말이요”하고 통명스레 대답했습니다.

“제가 종치는 사람이 되겠어요”라고 한스는 자원하였습니다. “우리 집은 탑에서 가까워요. 전 종을 치는 법도 알고 있거든요.”

“우린 지금까지 종치는 소년이 없었어”하며 시장이 말했습니다.

“없었지요”하며 보좌관들은 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도 지금까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잊은듯이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소년이라면 해지는 시각을 알 것 같군요”하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알지?”

“저는 중요한 일이 일어나면 꼭 알아서 종을 울리겠어요”하고 한스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그게 문제야. 이 마을에는 오래 전부터 그러한 중요한 문제가 없었거든. 겨

울에 눈사태나 봄에 홍수도 없었어. 불이 난 집도 없었고. 종이 필요없단 말이야”라고 시장은 대답했습니다.

보좌관들도 그렇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한스는 시장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중요한 일이 생기면 종을 울려도 괜찮겠지요?”

시장은 한스를 내려다 보며 껄껄 웃었습니다. “우린 수년 동안 그러한 일이 없었다는 데도 그러니? 그렇지만 정말 중대한 사건이 있다면 종을 울리도록 해봐라.”

그 후에도 마을에서의 생활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스는 시장이 한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자 아침 일찍 한스는 소를 몰고 산골짜기로 올라갔다가 해질 무렵이면 다시 내려왔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는 첫 번째 암소의 젖을 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중대한 일이라도 일어나서 종소리를 듣게 되었으면 좋겠어. 종소리를 못들은 게 꽤 오래 되었는데.”

어느 날 저녁 소를 우리 안에 모두 가둔 다음 한스는 목장의 울타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는 소 젖을 짜야 하지만 할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젖 짜는 일은 할아버지에게 맡기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스는 거품과 함께 통을 채우는 흰 우유를 바라보다가 문득 저녁 노을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황금빛 노을이 비쳐 푸른 하늘과 검푸른 산이 조화를 이루었는데 호수는 하늘 빛을 그대로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한스는 그 순간 아름다움과 놀라움에 숨을 죽이고 지켜 보았습니다. 산 밑 마을의 조용한 거리는 지금이 저녁 식사 시간임을 말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깊은 생각에 잠겨 저녁 노을을 바라보셨습니다.

“저것을 모두 봐야 해!”하며 한스는 갑자기 울타리에서 뛰어내리며 소리쳤습니다.

한스는 탑으로 한 번에 두 계단씩 뛰어 올



라가면서 시장의 말을 생각했습니다. “중대한 일이 있거든 종을 울려도 좋다.”

한스는 탑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양손으로 밧줄을 힘껏 잡아당겨 종을 울렸습니다. 곧한 집 대문이 열리더니 뒤를 이어 여러집 대문들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나와 아이들 손을 잡고 탑으로 달려왔습니다.

“저걸 봐, 큰 산불이 났어!”하고 서쪽 하늘을 가리키며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정말이구나!”하며 시장도 외쳤습니다. “참 멋진 불길이군. 저것을 볼 수 있게 종을 친 한스에게 감사해야겠는걸 우리 다섯 아이들도 저건 처음일꺼야!”

사람들은 탑을 향해 달려가면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찬란한 빛이 서서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스름한 저녁 빛에서 사람들은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저녁 식사를 중단하게 했던 그 일이 거짓 경고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자 사람들은 화가 났습니다.

“한스란 놈 어디 있지?”하고 시장이 외쳤습니다. “그 놈을 잡아오너라!”

“예 한스를 잡아오겠습니다!”하고 보좌관들이 소리를 모아 대답했습니다.

“한스를 찾아라!” 모두들 소리쳤습니다.

“네 놈은 모든 마을 사람들을 속였어. 아무도 재미있다고 한 사람이 없단말야. 저녁 식사만 망쳐 놓았어”하고 한스를 잡은 판리는 소리질렀습니다.

“나도 저녁을 못먹었어!”하고 다른 사람들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우리를 속였단말야”하고 시장이 말했습니다. “불이 아니잖아. 저녁 노을이잖아”

한스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집이 불타기를 원하십니까?”

보좌관들은 한스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때 시장의 막내 아들이 사람들의 틈을 헤치고 아버지 곁에 나섰습니다. “아버지! 저녁 노을이 정말 멋있었지요?”하고 물었습니다. 그 아들은 한스를 보며 “매일 저녁 것처럼 아름다운

노을을 볼 수 있니?”라고 물었습니다.

“그럼”하고 한스는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빛은 매일 조금씩 달라”

“그렇다면 매일 저녁 노을을 볼래”하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렴. 매일 저녁 나도 저녁 노을을 보고 싶구나”하며 소녀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두요!”하며 다른 사람들도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보며 미소를 지으며 각각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장과 할아버지만이 한스와 함께 탑에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바쁘겠는걸. 저녁 노을을 볼 수 있는 의자를 문 앞에 만들어야지. 한스, 넌 잊지 말고 매일 저녁 종을 치도록 해라”하고 시장은 말했습니다.

시장이 떠나고 한스와 할아버지도 집을 향해 내려오면서 “종을 잘 쳤다 한스야!”하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정말로 큰 일이 일어난거죠”하고 한스는 대답했습니다. \*



헬렌 패튼이 스코틀랜드 던디에 살고 있는 샤로트 앨보에트에게 펜팔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은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였습니다. 헬렌은 초등학교와 상향회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었고, 교회의 신전 사진과 유타주의 명소 사진도 보내 주었습니다.

지난 해에 헬렌이 속한 와드의 브루스 드레이퍼 형제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스코틀랜드로 가게 되었습니다. 헬렌은 그 선교사가 샤로트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생각하면서 만일 그가 던디에 있게 되면 찾아보도록 샤로트의 주소를 적은 편지를 드레이퍼 장로에게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에 샤로트는 헬렌에게 두 명의 미국인 선교사가 집을 다녀갔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샤로트가 음악회에 갔을 때 방문을 했기 때문에 처음 방문 때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약 두 시간 동안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할머니에게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샤로트는 선교사가 집을 떠난 지 15분 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들의 방문 소식을 들은 샤로트는 너무나 반가워 즉시 헬렌에게 다음 토요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을 것 같다는 편지를 썼습니다.

헬렌이 다음 번에 받은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누가 침례받았는지 알아맞혀 보겠니? 누가 내일 확인을 받는지 알아볼래?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겠니? 바로 나야!” 그녀는 자기와 엄마가 불과 2주 만에 개종했다고 썼습니다.

다음 편지에서는 교회 활동, 새로운 친구, 로드쇼에서 맡은 역할 등에 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8월 21일 그녀는 또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꼭 쓰고 싶었다. 편지를 쓰지 못했다면 아마 눈물이 쏟아져 나왔을 거야. 내가 물몬이 되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단다.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네가 알다시피 스코틀랜드에는 말일성도 학교가 없단다. 그래서 나는 침례를 받은 후에도 계속 해리스 아카데미에 다니고 있어. 신교도 학생(장로교, 성공회 등)이 다니는 장로교 학교야. 우리는 매주 한 시간씩 종교 시간을 갖고 있어. 장로교 교리를 배우지. 그런데 내가 침례를 받은 후에 공부 방법이 좀 바뀌었다. 전에는 성경만 읽었어. 그런데 금년부터는 종교 시간이 토론식으로 바뀌고 선생님께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면 이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토론을 하게 되었어.

“난 한 가지가 아니라 여섯 가지 질문을 했단다. 나는 답을 모두 알고 있었어. 그렇지만 우리 교리를 선생님께 설명해 드리고 싶었던 거야.

“나는 (1)요한계시록 14장 6절의 해석 (2)고린도전서 15장 29절(죽은 자의 침례)의 의미 (3)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4)신회



## 펜팔을 통한 개종

헬렌 패튼



의 성격(삼위 일체인지 삼위 삼체인지에 대해서) (5) 합당한 침례 방법 (6)침례를 받는 이유 등을 물었다.

“질문을 하는 학생이 없어서 내 질문이 모두 첩판에 적혔다. 선생님께서는 다음 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대해서 토론하기로 하자고 결정을 하셨어요. 선생님은 이방인과 무신론자에 대해서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를 하셨어. 그런 후 토론으로 들어갔어.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이 하나라고 하는 교리에 관해 질문을 했지.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나는 질문을 한 거야. 선생님은 증거를 대라고 하셨어. 나는 성구를 찾아 읽었어. 난 전날 선교사들이 준 책에서 밤새도록 대답을 찾았거든.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나 성신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경전에서 읽어 주셨어. 그러자 선생님은 다른 곳으로 화제를 돌리시면서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영적

인 존재라는 것을 모두 알아요’라고 말씀하시지 않겠니.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육신과 머리와 눈을 가지신 분임을 말해 주는 성구를 또 읽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 하나씩 이야기를 하다 보니 요셉 스미스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겠니. 나는 영감을 받아서 말했어. 나는 내가 말했을 때 성신과 주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다는 걸 알아 끝에 가서는 내가 받을 도말야 질문에 대답했어. 이젠 우리 반 학생 21명이 요셉 스미스를 알고, 내가 그에 대해서 한 간증을 들었어. 또 모두 물론경도 보았어.

“잘 있어 헬렌! 친구 샬로트로부터” \*



수마리는 뱃머리에 기대어 물 위의 집 위를 날으는 제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마철이 지나고 아름다운 날씨를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수마리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왜 넌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니?”하고 오빠는 강가로 배를 저어가며 물었습니다. “난 처음 채소를 팔러 나왔을 때 무척 신이 났었어”라고 말했습니다. 수마리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좀 웃어보렴” 하고 오빠가 말했습니다.

“싫어”하며 수마리는 대답했습니다. “난 두렵단말야.”

“두렵다니?” 하며 오빠 포트는 웃었습니다.

“날 놀리지마.”하며 수마리는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놀린 게 아냐. 그런데 무엇이 두렵다는 거지?”

“난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난 채

소를 팔 수 없어.”

“그게 이유란 말이지.”하고 포트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방법을 알려 주지.”

포트는 수마리에게 그녀가 알아야 할 것들을 일러 주었으나 수마리는 더욱 두려운 생각만 들었습니다.

“오빠, 제발 내 대신 오빠가 채소를 팔아 줄 수 없어, 오늘만 말이야”하고 수마리가 말했습니다.

“넌 알고 있잖아, 난 오늘 딱 일 때문에 안돼.”

수마리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는 간청을 했으나 별 수 없었습니다.

“자, 여기다.” 하며 포트는 수마리에게 채소 더미를 넘겨 주었습니다. “자, 난 여기서 떠나야 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봐. 가족이 너만 믿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

“오빠, 가지마...” 그러나 포트는 배에서 내렸습니다.



## 물위의 시장

웨리 존슨/글 딕 브라운/그림



“넌, 잘 할 수 있을꺼야.”하며 포트는 사람들 틈으로 사라졌습니다.

수마리는 울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오가는 사람들과 물 위의 집 아래서 수영을 즐기는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수마리는 수영을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갑자기 그녀에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배를 강가에다 대 놓고 오빠 일이 끝날 때까지 수영이나 해야지 하고 마음먹었습니다. 아무도 사가는 사람이 없었고, 사탕수수 하나는 내가 먹었다고 말해야지.

다시 그녀는 오빠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가족이 너만 믿고 있단다.”

수마리는 다시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이 자기를 믿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야채를 팔아 버는 게 가족의 유일한 수입이었습니다.

수마리는 서서히 노를 저어 강으로 갔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채소를 팔아야 해.”라고 그녀는 생각하였습니다. 작은 배를 강으로 저어 가는 수마리의 가슴은 전에 없이 두근거렸습니다.

“옥수수 사세요…… 배추 사세요……사탕수수요.” 수마리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배추요……사탕수수요……옥수수 사세요……” 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직도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쳐다보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싱싱한 배추요, 옥수수 좀 사세요.” 수마리는 다시 외쳤습니다.

한 부인이 조심스레 배추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수마리의 음성은 기어들어 갈 것만 같았습니다.

“싱싱하니? 틀림없지?”하고 부인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만 끄덕거렸습니다.

“그걸 사겠어.”하며 부인은 수마리에게 돈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순간 다른 두세 명의 손님이 그녀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싱싱한 게 틀림없겠지?”하며 그들은 물었습니다.

“아빠가 말씀하셨는데요, 물건이 매우 싱싱하고 좋대요.” 수마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부인들은 바구니에다 물건을 담고 돈을 치루고 갔

습니다. 또 다른 손님이 왔습니다.

수마리의 가슴은 아직도 두근거렸으나 너무 바빠 고개를 잊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계속 찾아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버렸습니다. 그녀는 노를 저어 오빠를 데리러 강가로 갔습니다.

“수마리, 여기야!” 포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마리는 그에게 배를 대었습니다.

“자, 나머지는 강가에 있는 집에다 팔기로 했단다”하며 오빠가 배에 올랐습니다.

“오빠! 다 팔아서 남은 게 없어.”

“없다고?” 포트는 재빨리 배를 둘러보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애! 강물에다 버린 건 아니겠지?”

수마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돈주머니를 들어 올려 보였습니다.

포트는 웃었습니다. “두렵다더니 거짓말이었구나! 나도 시장에서 다 팔지 못했었는데!”

“그렇지만 두려웠어! 부인들이 모두 다른 집 채소보다 우리 걸 좋아한 것 같아.”

“너를 믿었던 모양이지!”하며 오빠가 말했습니다.

“오빠, 두려웠었지만 이제 괜찮아.”

생전 처음으로 수마리는 가족을 돕는다는 것이 기쁜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번엔 더 쉬울꺼야. 그리고 두렵지도 않을꺼고.”하며 포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번이라고?” 수마리는 정색을 하며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걱정마.” 포트는 웃었습니다. “곧 다시 하라고 하지는 않을테니까.”

수마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법을 익힌 후에 다시 하라는 거지요?”하며 수마리는 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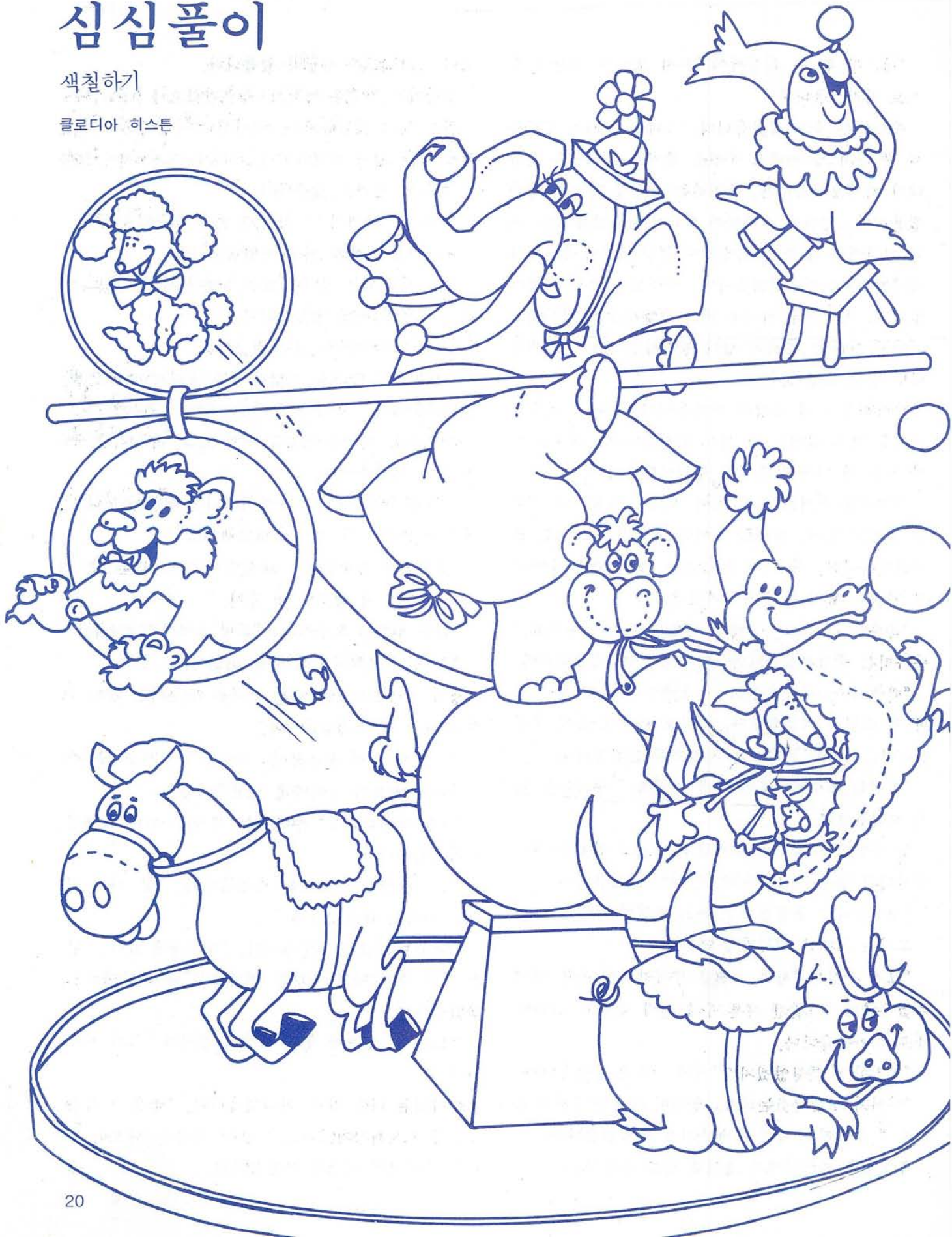
“그래, 좀 있으면 좋은 느낌이 들꺼야. 그때 시작하자.”

수마리는 배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좋은 느낌을 갖도록 노력해야지.”하고 그녀는 하늘을 나르는 제비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

# 심심풀이

색칠하기

클로디아 히스톤





로렌 시 던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거듭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왕국을 열심히 구하는 자를 성찬식에서 내어 쫓지 말라. 나는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자에 관하여 이를 말하느니라.”(교성 46:5) \*



러셀 엠 넬슨  
본부 주일학교 회장

“비회원도 회원인 친구와 함께 교회 모임에 참석하면 성찬을 들어야 합니까?”

비 회원에게 복음의 정신과 가르침을 접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그들을 교회 모임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회원 친구와의 우정 증진 책임을 맡고 있으므로 우리의 친구나 이웃을 보조 조직 모임은 물론 주일학교나 성찬식에 초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찬이 전달되기 전에 비회원 친구에게 성찬은 회원이 침례 시 맺은 성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 드는 의식이라고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비회원은 아직 침례를 받지 않았으므로 성찬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모임에는 또 다른 비회원들도 있는데, 그들도 성찬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성찬을 취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거나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설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나는 주일학교나 신권회에서 교회의 교리라고 확신하기 어려운 복음을 가르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교사의 간증이나 체면을 손상시키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전전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교회의 기본되는 일의 하나입니다. 주님께서는 교리와 성약 88편 7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니, 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치라.” 또한 118절에서는 “...너희는 지혜의 말씀을 부지런히 구하고 서로

가르치라. 참으로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항상 간직하라는 말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나 추측을 피할 수 있도록 신앙을 쌓고 이 성구의 정신으로 공과를 인도하는 것이 교사의 책임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반원들이 문제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미묘한 반응을 야기시킬 수도 있으므로 주의깊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관심이 있는 반원이 문제된 부분을 다루는 성구를 연구하여 문제된 교리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는 경전의 장과 절을 근거로 그의 견해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그는 주님께서 “함께 토론하자”(교성 50:10)고 하신 대로 개인적으로 교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 문제를 다음 공과 시간에 다시 검토하자고 제의를 해도 좋습니다. 만일 교사가 이에 응하지 않고 그릇된 교리를 고집한다면 와드나 지부 주일학교 회장단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교사 자질 향상 기초 과정과 현임 역원 과정을 이수한 주일학교 교사는 이러한 문제를 피하는 법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공공연한 시비나 날카로운 비판 등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

시 끄러운 시계 소리가 단잠을 깨웠습니다.  
“벌써 일어날 시간이야! 아이 참!”

마침내 거친 시계 소리가 멎고 나는 마지못해 몸을 움직였습니다.

“토요일이지. 쉬는 날이잖아?”

그러나 나는 어두운 불빛 사이로 옷을 주워 입고 슬리퍼를 신고 문쪽으로 걸어가 공책과 연필과 경전을 들었습니다. “이거면 될까?” 혼자 물어 보았습니다. “토요일인데 이런 일을 해야 한담?”

나는 의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시 일어나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때때로 공책에 성구를 적기도 했습니다. 다시 나는 왜 이러한 일을 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기억했습니다. “새로운 나야, 복음에 굶주린 사람에게 큰 의미가 있는 걸 배우는 나란 말이야”.

토요일 아침 식사 전에 성경과 공책과 깊은 사색을 통해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많은 것을 얻고, 영생까지도 얻을 수 있습니다. 빵이 아니라 진리로 가득찬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림을 느낀다는 것이야말로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느낌을 갖게 되었는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때 혼란기에 있어서 나의 마음은 진지한 반성과 커다란 불안감에 사로잡혔었습니다.”(요셉 스미스 2서:8)

이것이 회복이 있기 전 종교적인 혼란 속에서 소년 시절 요셉 스미스가 한 말이었습니다. 나는 처음



## 사색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수잔 힐



이 말을 읽고 깊이 생각하고 추리하는 그의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니파이도 어린 시절에 이같은 은사를 받았습니니다.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주님의 영에 이끌려”(니일 11:1)

그는 젊어서도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이 몇몇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일까요?

나는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니파이와 같이 영에 사로잡혀 보거나 요셉 스미스처럼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일까 하고 느껴봤습니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많은 사람처럼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니다. 이 위대한 두 사람은 실천했으나 나는 이를 행하지 못했습니니다.

사색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이를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나는 너무 바쁘다고 생각했고, 바쁠 때는 사색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니다.

나는 시간이 날 때면 이야기책이나 상식을 위한 책을 훑어보듯 경전을 읽었습니니다. 나는 경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곁에 나타나 있지 않은 부분을 서서히 찾아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니다. 나는 너무도 해야 할 일이 많아 조용히 명상을 할 시간을 낼 수 없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니다.

대학 졸업반이 되었을 때 나는 주일학교 교사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니다. 이것은 주님의 왕국의 교리를 깊이 생각하고 명상해 보도록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은사였습니니다. 나는 경전을 읽고 또 읽고 골자를 찾아 내 반원들에게 설명해야 했습니니다. 때때로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 포기하고도 싶었지만, 이것은 나에게 값진 은사가 되었습니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갈증으로 비를 기다린 목마른 작은 씨앗과도 같은 나의 영혼에 부어준 물과도 같았습니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복음을 알게 되었는지를 조금씩 배우게 되었습니니다. 그것은 특정인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아니라 순종의 법과 오랜 기간 동안의 연구에 근거를 둔 축복이었습니니다.

이른 아침에 경전을 읽으면서 나는 사색과 탐구의 몇 가지 기본 원칙을 배우게 되었습니니다.

1. 경전을 읽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한다.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십시오. 읽는 동안 계속 기도하십시오. 의문점이 있을 때는 즉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2. 연필과 공책을 항상 곁에 준비해 둔다. 이것은 영감을 불러 일으켜 주는 작업으로, 때때로 목표나 기상천외의 아이디어나 원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것을 잊기 전에 기록해 두십시오.

3. 천천히 계속한다. 이 연구는 달리기와 아닙니다. 잠을 자기 전에 꼭 지정한 페이지를 읽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장이나 한 구절을 가지고도 며칠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성구를 암송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적절한,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감추어진 의미를 파악하게 됩니다.

4. 경전을 읽는 동안 질문한다. 나는 성찬 기도(“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니, 이 떡을 먹는 사람마다 당신 아들의 몸을 기억하여 먹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또 저희들이 기쁘게 당신 아들의 이름을 받들어 항상 그를 생각하여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킬 것을 당신 앞에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의 영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도록 이 떡을 축복하시며 성결케 하소서.”(모로 4:3))를 읽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며 이에 대답하려고 합니다.

(1) 성결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2) 나는 하나님께 기쁘게 구세주의 이름을 받들고자 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였나? 어떻게 보일 수 있나?

(3) 내가 항상 그를 기억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나?

(4) 나는 항상 그를 기억하고 있나? 어떻게 기억하나?

이러한 질문을 생각하고 대답하면서 나는 내면의 자신을 발견했습니니다. 나는 질문을 하고는 주님을 찾았습니니다. 질문을 하면 가슴의 문이 열리고 성신이 거할 자리가 나게 됩니다.

5. 하루 중에도 여러 차례 하던 일을 멈추고 깊이 생각한다. 일례로 “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라”(레 19:18참조)는 진리를 생각합니다. 성구를 반복해 읽고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생각해 보고 작은 카드에 여러분의 생각을 적습니니다.

시간을 내는 일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매일 새롭게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견해를 새롭게 해 줄 때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새로운 방향이 서고 매일 계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사색과 명상을 계속할 때 복음과 우리의 사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색할 때 여러분은 평안을 안겨 주는 성신이 가슴 속에 깃들어 여러분 자신을 진리로 밝혀 주게 하는 길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영광이요 예지의 영광입니다. 나는 경험을 통해 무엇과 비교될 수 없는 가슴의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니다. 이는 잠시 동안이나마 내가 육신의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곳까지 이해가 미쳤기 때문입니다.

“네 가슴을 뜨겁게 하리니”(교성 9:8)

“빛을 발하여 너희에게 광명을 주는 빛은 너희 눈을 뜨게 하시는 이를 통하여 오나니, 너희 이해력을 일으키는 그 빛이시니라.”(교성 88:11)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복음의 원리를 생각하고 주님의 율법대로 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나는 주님과 그의 사업과 지상에서 그의 목적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큰 사랑을 갖게 되었습니다.”(대회 보고, 1971년, 6페이지)

사색할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이 지상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지식을 얻게 되는 열쇠입니다.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남겨주어 내가 곁에 있을 동안에 나를 부르라고 명한 이 계명을 너희 마음에 깊이 생각하게 하노라.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곁에 가까이 가리라……”(교성 88:62~63) \*

# 이해하면서 읽음

제프리 알 홀런드



편집자 주 : 질문을 통해 아버지가 딸에게 물문경 읽는 법을 가르쳐 준 “경전의 말씀을 실천함”이라는 제목의 홀런드 형제 기사가 1월호에 실린 바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물문경에서 되풀이되는 몇 가지 주제를 제시하고, 그는 또 우리가 물문경을 읽으면서 자문자답할 수 있는 문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주제를 찾고, 이것이 제시된 이유를 자신에게 물으면서 보다 이해에 도움이 되고 보다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니파이일서 제1장에서부터 본서의 주제가 되는 계시가 너무나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니파이일서 전반에 걸쳐 매 페이지마다 그 주제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제2장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됩니다. “주께서 꿈으

로 내 부친에게 이르시기를……” 2절에서 그 메시지가 강조됩니다. “주께서……명하셨으며.” 16절과 19절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넓어지면서 니파이까지 포함됩니다. “주께서 내게 임하시, “주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다음 장에서는 더 많은 계시가 주어 집니다. 리하이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



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나니, 꿈에 주님께서 나와 너의 형들을 예루살렘에 보내라 명하셨느니라.”(니일3:2) 이 명령을 수행할 때 어려움이 닥치자 “주의 천사가 저들 앞에 내려와서 저들에게” (니일 3 : 29)말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홀로 가면서 니파이는 “영에 이끌려”나아갔으며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때에 영이 내게…일렸으나…” (니일4 : 6, 10) 결국 니파이가 구하려 든 하나님께서 기록된 계시를 얻기 전에 한 사람이 죽습니다. 니파이와 그의 기록을 읽는 사람들은 경전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경전이 없이는 온 나라가 불신앙에 흔들리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5장까지는 꿈, 예언, 기록, 하나님의 음성, 시현, 천사, 영적인 속삭임 등 구절구절마다 계시의 계시가 더해 집니다. 진지하게 읽는 사람이라면 이 첫 몇 페이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능력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게 됩니다. 니파이일서에는 그러한 주제가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지상에 있는 그의 자녀들의 일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꺼이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 물문경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독자가 기꺼운 마음으로 책을 읽어나가면 생명 나무에 관한 리하이의 시현과(그 나무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사람만이 이를 수 있음)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세상의 종말까지에 있을 일에 대한 니파이의 놀라운 시현을 위시하여 이제까지 기록된 것 중 가장 의미 깊은 몇 가지 계시에 접하게 됩니다. 니파이일서의 끝 부분에서 여호와와는 이사야를 통해 다음과 같이 물으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것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저의 배에서 난 아들을 애뜻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혹 저들이 잊는다 할지라도 오 이스라엘의 만백성들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로다. 보라,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고.”(니일 21 : 15-16) 물문경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몇 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

리가 계시를 받게 될 때 행해야 할 일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한 일임을 나는 압니다. 리하이가 최초로 기도를 드린 것에서부터 니파이가 깊이 명상하는 기사에 이르는 동안 계시를 받게 되는 방법을 자세히 기술한 중요한 몇 가지 기록에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11장에서 15장에 이르는 내용에 보면 니파이는 주님의 영이나 천사로 부터 “보라”는 말을 듣습니다. 영이 “보라”고 하면 그는 부친이 시현에서 본 것과 똑같은 상징물을 보게 됩니다. 영이 “보라”고 지시하면 그는 그것들이 지닌 의미를 알게 됩니다. “보라”고 영이 외치면 니파이는 국가의 운명과 세상의 종말을 보게 됩니다. “보라”는 영의 명령은 여러 페이지에 걸쳐 메 페이지마다 수차례씩 나옵니다.

이 짧은 명령의 말은 이 책을 읽는 동안 어떤 중대한 일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결정적인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보라” 하늘의 천사는 마치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으로 영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계시를 읽으십시오. 꿈, 시현, 예언, 속삭임의 세계를 보기 위해 이해를 넓히십시오.” 경전을 읽지 않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읽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눈을 갖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고 우셨습니다.

물론경의 이 처음 몇 장에서 무엇이든 중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대한 일이란 그 몇 장의 내용이 물론경의 다른 책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그 책은 물론경의 또 다른 책과도 연결되어 그 전체를 하나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파이일서를 읽어 보면 대립과 선택이 반복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니파이와 레이벤은 반대되는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리하이는 그의 친척 레이벤과 종류가 다른 지도자였습니다. 서로 상대되는 것끼리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니파이, 샘	레이벤, 레뮤엘
리하이	레이벤
새 예루살렘	고대 바빌론
생명 나무	지옥의 깊이
그리스도의	가증의 어미

모친 동정녀 창녀  
하나님의 어린양 악마의 교회  
의 교회

물론 궁극적인 대립은 그리스도와 사탄 간의 대립입니다.

사탄은 결국 정복되어 “여러 해를” 풀려나지 못하게 됩니다. (니일 22:26) 니파이는 그러한 선택의 길을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성실히 생의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그와 그를 따르는 성실한 추종자들인 적은 우리는 훌륭한 일에는 반드시 그 반대가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법사에 서로 상대가 되는 것”이 있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니파이일서에서 “법사에 서로 상대가 되는 것”에 대한 경전상의 위대한 설교를 읽기 시작합니다. 이 설교에는 아담의 타락과 그리스도의 구속, 이에 관계되는 자유의지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니이 2:11)

리하이는 상반되는 것과 자유의지에 관한 이 위대한 설교(혹은 축복사의 축복)를 니파이일서에서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50페이지에 달하는 대결과 선택의 경험을 한 뒤에 듣는 이 설교는 그의 아들이나 독자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것이 되었습니까! 이 작은 무리 가운데 충실한 몇 사람은 “법사에 상대가 되는 것”에 대해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에게 타락한 세상, 하나님의 계획, 자유의지의 행사 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그들에게, 태초부터 세상 끝까지 존속하는 상대되는 것을 물리치시고, 지옥의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자 모두에게 “자유와 영생”을 주러 오실 메시지에 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니파이일서에 나오는 모든 고난은 니파이일서와 그 책 전체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33장의 내용은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그리스도가 담당하는 역할을 나타내 주며 메시아와 그의 신성을 증거하기 위해 말일에 나타날 물론경 주변에 있을 일들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을 크게 다

루고 있습니다. 니파이일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에게 주는 니파이의 마지막 간증, 즉 위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끝납니다. 니파이가 죽자 야곱이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 즉 교만, 재물, 성적인 부도덕, 심지어는 시렘과 같은 반 그리스도의 영향을 경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책의 내용은 그렇게 계속됩니다. 계속해 가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스스로 의롭게 여기며 “기도하는” 조램인에 관한 엘마서 31장의 기사가 가장 불의하고 사악한 반 그리스도인 코리호에 관한 엘마서 30장 뒤에 나오는가?

이 두 장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혹은 두 장 모두 신앙에 관한 위대한 교훈인 엘마서 32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잘 알려지지 않은 지노스의 설교가 포함되어 있는 엘마서 33장과 같은 작은 내용이 엘마서 32장과 34장과 같은 두 절작 사이에 끼어 있는가? 그것도 역시 두 장을 연결해 주는 절작인가? 이 모든 내용(엘 30-34장)은 “엄격한 그의 말”이나 36장부터 42장에서 엘마가 그의 아들에게 준 개인적인 권고의 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니파이삼서 11장은 물론경에 나오는 “산상 수훈”(니삼 12, 13, 14)에 어떤 공헌을 하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의미에서 산상 수훈 전체를 하나로 묶어 주나? 성찬에 관한 교훈은(니삼 18장) 왜 그리스도께서 아이들과 함께 계신 기사가 실려 있는 니파이삼서 17장 뒤에 나오는가? 성신의 필요성은(니삼 19장) 앞 장들과 어떤 관계가 있나? 물론경은 의미있는 내용으로 가득찬 책이며 구원의 교리이며 예언적인 요소로 예술 작품처럼 구성된 책입니다. 책 한 권, 한 권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메시지는 오직 하나 곧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경은 위대한 책이요, 훌륭한 책이며 책 중의 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입니다. 우리는 목마른 어린아이와 같이 그 샘에서 나는 생명수를 끊임없이 마셔야 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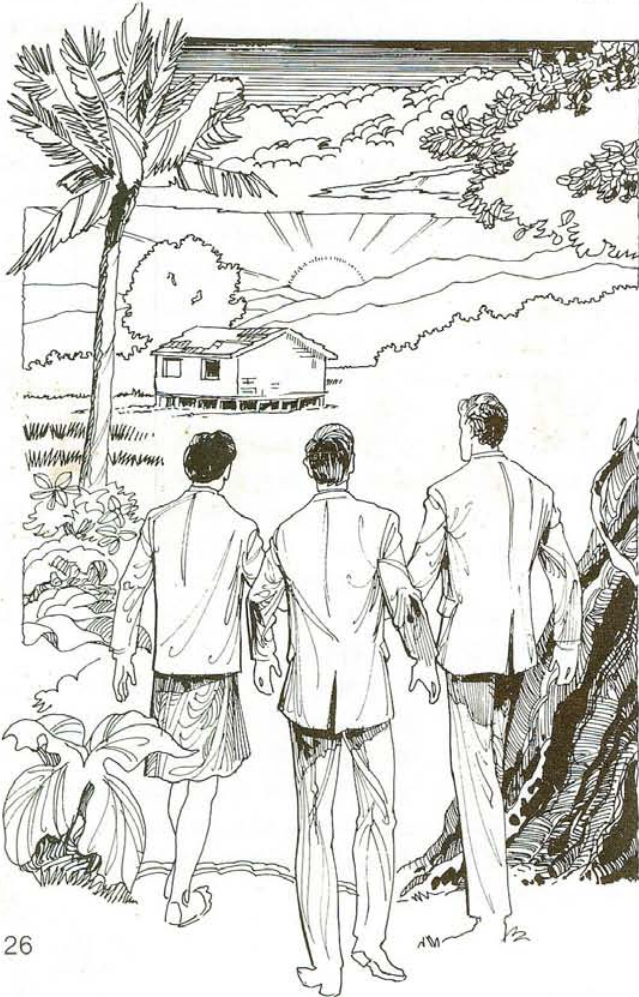
# 선교 사업

## 자바의 작은 마을에서 본 신앙

게이른 에스 구르

나는 동반자인 로버트 브라운 장로와 함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선교부에 소속되어 자바 섬 수라바야시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막 집에 들어와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요리 일을 돕던 속키민 형제(장로임)가 달려오더니, 지금 편지를 막 받았는데 그의 사촌이 중태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의사가 최선을 다 했으나 별 수없어 곧 세상을 떠나게 될 것 같다고 써어 있었습니다.

속키민 형제의 말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함께 자기 마을에 가서 축복을 해 주자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에 동의하고 언제 가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아침이 어떻겠느냐고 제언했습니다. 좋다고 말하자



그는 나의 팔을 붙잡고는 “고맙습니다. 우리 사촌은 곧 살아날 거예요”라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이 형제의 신앙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에 일어나 우리는 세 시간 반 동안 버스를 타고 속키민 형제의 시골 집에 닿았습니다. 속키민 형제가 집이라고 한 곳은 대나무로 엮어 지은 조그만 오두막이었습니다. 침상에 누운 그의 사촌은 곧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왜 이곳에 왔는지를 설명하고 우리는 그에게 축복을 받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기름을 붓고 축복을 한 후 마을을 떠나려고 했을 때는 이미 우리가 왔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축복을 받겠다고 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축복을 하면서 나는 가난한 자들이 병든 자를 주님께 데려와 축복을 받았을 때의 상황이 어떠했겠냐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다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자바의 작은 마을에서 신권의 권능을 배웠고, 이 권능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진 신앙을 보고는 겸손함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며칠 만에 속키민 형제는 그의 사촌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

## “가만히 있으세요 내가 구해 드리죠”

시 브이 스펜서

목사들은 비밀 결사를 조직하고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더욱 단호해졌고, 내가 관리 하던 지방부 산하 지부를 방문하는 동안 나는 이곳 영국 노오리치에서 무엇인가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나는 즉시 교회로 달려갔고, 그곳에 도착하자 두 형제로부터 “성 앤드루 홀에서 반물론 집회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좋습니다. 제가 가보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과 또 내가 만난 사람들은 모두 가지 말라고 신신 당부하고 있었습니다.

홀에 들어서자 나는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연단 위에는 노포크와 서포크에서 온 저명한 목사 17명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성직자이니 저곳에 앉자.” 나는 앞으로 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날 모임에는 2천 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당시 성

앤드루 홀은 영국에서 세 번째 큰 집회소였습니다.

모임은 2시 반에 시작되었고, 내가 들어갈 때는 5시 경이었습니다. 8시 반쯤 되자 의장이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이곳에 물론 교회 회원이 있다면 일어서서 발언을 해도 좋다고 발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시선은 나에게로 쏠렸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발언은 일종의 함정이었습니다. 나는 연단에서 다섯째 줄 뒤에 앉아 있었는데 이들은 내가 연단에 나갈 길도 비켜 주지 않았고 오히려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속으로 기도를 드리고 앞줄에 앉은 목사들의 틈으로 길을 내어 앞으로 나왔습니다. 맨 앞줄에 올 때까지 이런 식으로 길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당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그후에도 기억을 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말을 마칠 때쯤 해서는 청중 쪽에 등을 보이고 목사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해 한 마지막 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이단자들입니다. 당신들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약속한 은사와 축복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언합니다. 오늘밤 당신들께서 보이신 이러한 행동은 이 자리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가르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동기가 될 것입니다.”

내가 말을 마쳤을 때 의장이란 사람이 물론경에서 무엇인가를 읽으려 했으나 몸이 떨려 결국은 읽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을 하려고 했으나 그도 똑같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서 있던 곳에서 현관에 이르는 곳에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나는 모임이 끝나기 전에 그곳을 빠져 나와야 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현관에 도착하니 그곳에는 사람이라기 보다는 사탄과 같은 무리들이 꽂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저 놈이 누구지? 찢어 죽여라. 강물에다 집어 던져라.”

그 순간 망토를 입은 키가 큰 사람이 나를 보았습니다. 그는 내게 달려와 그의 망토로 나를 싸고 그의 팔로 나를 감싸 안고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내가 구해드리죠.” 그는 현관을 빠져 나와 정원을 지나 행길로 달려갔습니다. 폭도들이 사방에서 몰려 들었습니다. 키 큰 사람은 재빨리 길을 빠져 나와 그의 집에와서 돌벽에 달린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나를 집안으로 밀어 던지고는 폭도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약 45분쯤이 지나서 그는 우리 성도들을 몇 명 데리고 와서 나를 놓아 주고 집까지 가도록 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가장 훌륭한 출판물을 이 사람에게 선사하고 그에게 왜 나를 구해 주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선교 사업은 전에 없이 번창했습

니다. 예배당이 꽉 찼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한쪽 벽을 헐고 연장과 나무를 가지고 와서 예배당 길이에 맞게 연단을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저녁 집회가 끝난 후 17명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개종한 사람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

클로디어스 빅터 스펜서 형제는 1824년 4월 2일 매사추세츠주 웨스트스톡브릿지에서 태어났다. 그는 1847년 9월 23일에 유타주로 이사했다. 그의 직업은 농부였다. 그는 1856년에 주의회 회원이 되었고, 솔트레이크시티 시평의원도 역임했다. 그는 영국과 미국에서 각각 두 번씩 선교사로 봉사했다.



# 영적 말씀

## 젊은이란?

리차드 엘 이반스

**젊**은 시절이란 언제입니까? 그리고 누가 젊은이입니까? 젊음이란 모든 것이 빨리 움직이는 때입니다. 젊음이란 다른 어느 연령보다 오래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른 연령의 시기를 지나왔듯이 모두 젊음이라는 시기를 지나게 되므로 특권을 더 받았다거나 덜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시기인 것입니다.

젊음이 여러분은 멀지 않아 노년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연로한 사람에게 묻듯이 여러분의 뒤에 따라오는 자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였느냐고 묻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여러분을 곧 십대, 이십대, 삼십대, 사십 대로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몰아갑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노인이 됩니다. 노년에 이르러 어떻게 보이시며, 어떤 느낌을 지니겠습니까?

젊음이란 누구에게나 영원히 속한 재산이 아닙니다. 오래 망설이지 말고 빨리 지나가야 할 복도이기도 같습니다. 서서 망설일 여지가 없는 때입니다. 우리는 모두 젊은

이건 노인이건 모든 연령의 사람을 존경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란 젊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연령의 인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란 누구이며 어느 때가 젊은 시절입니까? 우리가 영속적인 지위를 요구할 수 있는 클럽이나 단체가 결코 젊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매우 빠른 속도로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인생은 영원하나 젊음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전생애를 축복해 주는 값진 추억을 만드십시오. \*

## 1,113쌍이 신전 결혼했으나 영생은?

존 케이 에드먼즈  
솔트레이크 신전장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신의 성약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전에서 엔다우먼트를 받아야 합니다. 그 성스러운 장소에서 영원한 결혼의 성약을 맺어야 합니다.

나는 결혼을 하기 위해 솔트레이크 신전을 찾은 부부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1973년 8월 한 달만 해도 1,113쌍의 부부가 영생을 위해 필수적인 이 성스러운 의식을 받으

러 신전에 왔습니다.

나는 결혼 의식을 집행하면서 이들 부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께 의식은 집행해 드릴 수 있으나 영원한 결혼 관계를 보장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일이고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어야 할 일입니다. 끝까지 의롭게 견디어야 합니다. 이곳에 오는 것만으로는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애쓰지 않고는 아무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며”(교성 84 : 44) 끝까지 의롭게 생활해야 합니다. \*

## 한번의 노력

폴 에이치 던  
칠십인 제일 평의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남녀 여러분 중 자신의 이상이나 특별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하였고 낙담하시거나, 계속적인 손실과 실망으로 하시는 일을 포기하려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엘버트 허버드의 다음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성공과 실패의 차이란 매우 미세하기 때문에 흔히 패배를 딛고 빛나는 승리를 가져오는 데는 또 한 번의 노력으로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



# 우리는 서로 필요합니다



**교**회 회원이 받고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의 하나는 서로를 강하게 하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께서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경험 즉 여러분의 간증을 키워 준 영적 경험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완전히 기사화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음 부문에 관한 경험이나 그림이나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경전 읽기  
교회 봉사

보조 조직에서의 가르침  
가정 복음 교육  
방문 교육  
가정의 밤  
선교 사업  
개종  
활동 촉진  
회원으로부터 받은 개인적인 도움  
기도 응답  
제보 사업  
부모와 자녀가 가진 특별한 시간  
이외에 다른 제목이나 의견을 주

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일은 여러분이 잠시 시간을 내어 다른 사람과 나눌 중요한 경험이 있나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교회 잡지에 기사를 기고한 사람들은 그들이 배우거나 경험한 바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한 평범한 교회 회원들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똑같이 시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기사나 경험담을 성도의 벗사 남 영진 형제 앞으로 보내 주십시오. \*

